

비뇨기과 전문의 정치영의
술직, 대담한 性

어느 날 아침 일찍 40대 초반의 K씨가 내원했다. "선생님, 며칠 전부터 소변 볼 때 따끔거리고 거기에서 고름이 나오네요" 환하게 이어진 그의 말은 "사실 마누라가 더 걱정됩니다. 어떡하지요?" 그는 초조한 빛을 감추지 못했다.

술 깨고 나서 뒤늦은 후회

다음날 술이 깨고 나서 뒤늦은 후회를 했지만 며칠 후 열려했던 일이 터지고야 말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K씨가 그 이후 부인과 몇 차례 잠자리를 가졌다는 것이었다.

“선생님, 고름이 나와요”

적으로 '임균성요도염'이라 일컫는데 요즘에는 임균이 아닌 다른 여러 세균에 의해 감염되는 '비임균성요도염'이 더 많은 추세다. 이 둘은 임상적으로 증상과 치료가 엇비슷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분에 큰 의미가 있는 않다.

못 할 죄책감과 괴로움에 시달리다 마치 자수(?)라고 하는 심정으로 병원을 찾은 것이었다. 그런데 더 놀라스러운 것은 그가 제대로 치료한다 해도 옮겼을 가능성이 높은 부인에게서 역 감염이 될 수 있었음이었다.

수 있고, 음부포진은 잠복된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고 자주 재발되어 매우 성가실 수 있다. 결론적으로 타인과의 성교를 원천봉쇄하고 부부 관계에 충실하여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 상책이다.

쾌락 추구에 따른 큰 상처

요새 진료를 하다보면, 성에 대해 무질서하고 자유분방한 일부 젊은이들을 간혹 보게 된다. 그러나 별 생각 없는 일시적인 쾌락 추구가 말 못 할 육체적 고통 뿐 아니라 상상 밖의 큰 상처를 줄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테마필 피부비뇨기과 원장)



48.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한 가마니(80kg)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양곡 연도(2005.11~2006.10)의 가구 부문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용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함께 풀어봅시다 <2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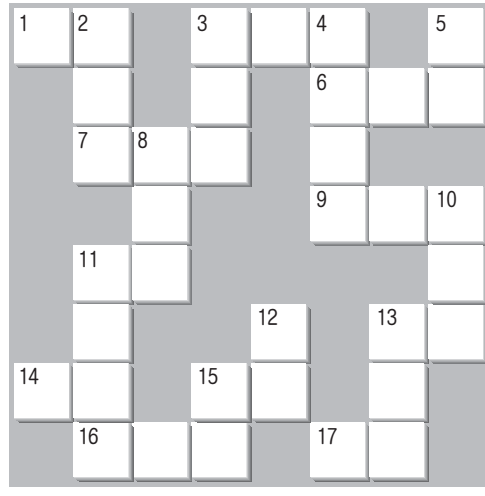
→ 가로풀이

1.배의 운항이나 수리(水利),관개(灌溉) 등을 위해 육지에 파 놓은 물길. 파나마 ~. 3.배우를 등장인물의 특성에 맞게 꾸며 주는 일을 맡아 하는 사람. 6.볼펜,연필 등 무엇을 쓰는데 필요한 물건을 아울러 이르는 말. 7.허가가 난 건물이나 인인 임시로 지은 건물. 9.지위가 등급에서 맨 위의 급. 이번 대회에서는 세계 ~ 선수들이 모두 모였다. 11.대자연의 넓고 큰 땅을 이르는 말. ~가 봄비에 촉촉이 젖는다. 13.나이가 많은 중. 14.삼국 시대에 한반도 남서부에 있던 나라. 기원전 18년에 온조왕이 위례성애 도읍하여 세운 뒤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발전해 고이왕 때 고대 국가의 면모를 갖추었다. 15.아들과 딸을 통틀어 이르는 말.→자식.

16.국립과 공립을 아울러 이르는 말. 17.처하여 있는 사정이나 형편. 나오서는 그럴 ~가 못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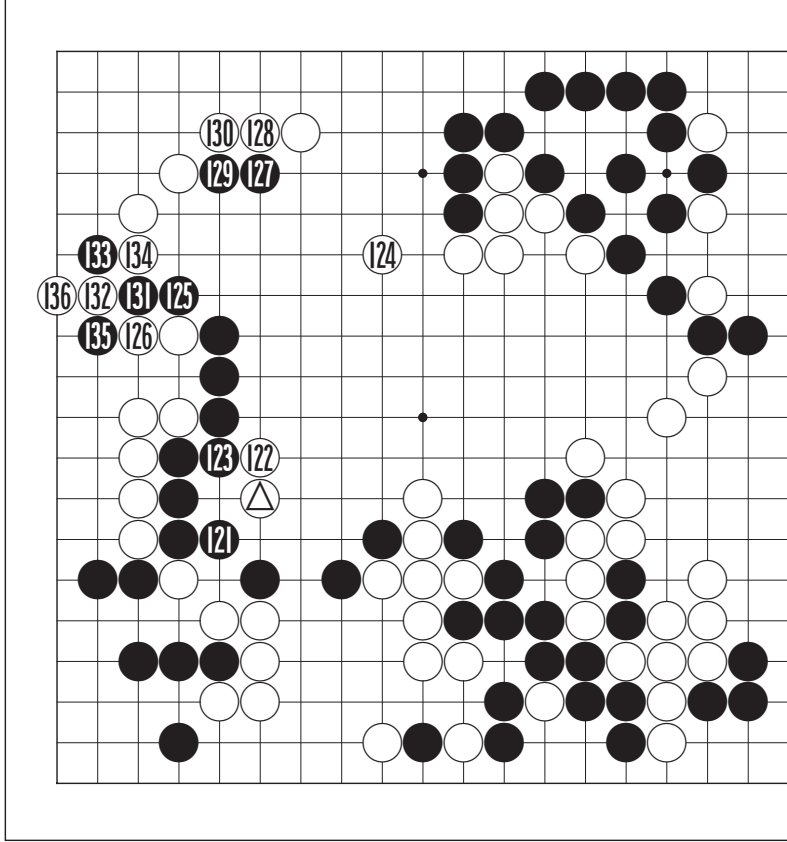
↓ 세로풀이

2.개별 주식이 하루에 내릴 수 있는 최저 한도의 가격.→하종가. 3.침,위액,땀 등 우리 몸의 분비액에서 나온 물질을 이르는 말. 4.모든 일은 반드시 바르길로 돌아온다는 뜻의 사자성어. 5.야구 경기에서 투수가 마음먹은 대로 공을 던지는 일.→컨트롤. 8.음극의 역할을 하는 아연 원통과 탄소 막대를 중앙에 놓고 그 사이에 염화암모늄,이산화망간 등을 흡수시킨 종이나 솜으로 반죽된 전해액을 채워 넣어 만든 것으로 휴대용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나 MP3 등에 넣어 음악 등을 들을 수 있도록 한다. 10.기온이나 가격,비율 등이 갑자기 올라



<함께 풀어봅시다 235회 정답>

로 삼. 그는 취직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했다.
▲지남주 정답자
양미라·광주시 북구 문흥동
노형자·나주시 계계동
▲응모방법
광주일보 지면을 오려 정답을 적어 보내시면 매 회 1명씩 추첨, 상품권(2만원)을 선물로 드립니다.
▲보내실 곳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한방 때린 효과 9보(121~136)
백 홍석의 6단 <목포시>
흑 김종민 6단 <해남군>
백 124는 유장한 수법, 형세가 유리하기 때문에 공격보다는 백이 얽은 곳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이 수로는 '참고도'의 백 1로 놓고 나서 흑 2를 기다려 3으로 뛰는 것이 더욱 간명했다. 흑 125로 쫓혀 약간 국면이 어지러워지고 있다. 136으로 내려선 수가 위수처럼 보이는데..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박정상·이세돌 맥심배 결승
박정상 9단이 최근 강원랜드에서 열린 제9회 맥심커피배 입선최강전 4강전에서 유창혁 9단을 271수 끝에 흑 4집 반으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박 9단은 대국 종반 끝내기 단계에서 멋진 사석작전을 펼치며 승부를 뒤집는 '사발투혼'을 선보였다.
지난해 후지쓰배 우승으로 입선의 반열에 오른 박 9단은 입선최강전에 처녀 출전해 결승에 올랐다.
박 9단은 오는 25일 맥심배 3연패에 도전하는 이세돌 9단과 결승3번기를 갖는다. 이 대회는 제한시간 각 10분에 40초 초읽기 3회가 주어지는 속기전이다. 우승상금은 2천만원.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22일(음 12월 4일 丙辰)
36년생 오늘 마음껏 웃는 날이다. 48년생 능동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60년생 잘못된 말 한마디가 오해가 될 수 있으니 삼사일언하라. 72년생 밤손님이 보이니 문답을 잘하라. 84년생 내 것 주고 욕 먹어도 좋다. 행운의 숫자 : 04, 16
37년생 남의 입에 놀아난다. 49년생 밖은 조용하나 집안이 시끄러워니 집안을 살펴봐라. 61년생 변화는 새로운 일을 만든다. 73년생 뜻하지 않은 여인을 만날 수도 있다. 85년생 귀한사람이 북마르게 찾는다. 준비하고 있으라. 행운의 숫자 : 22, 43
38년생 가끔은 싸우는 것이 부부사이지만 지나치면 큰 일 난다. 50년생 모든 일에 신중함을 있어야 하나 오늘도 과감하게 추진하라. 62년생 손재수가 있으니 조심하라. 74년생 달빛으로는 과일이 익지 않으니 방법을 찾라. 행운의 숫자 : 02, 31
39년생 많은 것을 얻으려거든 많이 배워라. 51년생 발전은 약속되었고 시작만 남았다. 63년생 과실은 손재를 부르지 몰라라 두드러지며 견뎌라. 75년생 실패는 과욕에서 출발하니 착실하게 진행하면 목표에 도달한다. 행운의 숫자 : 18, 42
40년생 친구끼리 다루면 생방이 손실이다. 52년생 전횡보다는 협상으로 처리하면 좋은 결과 얻으라. 64년생 세사의 허가 잘못하여 법원까지 가니 신중함 하루를 보내라. 76년생 직장과 가정에 즐거운 일이 생길 수다. 행운의 숫자 : 10, 33
41년생 시비 구설이 있으니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하라. 53년생 험이 든 하루였으니 휴식을 취하라. 65년생 상행 따라 길흉이 바뀌니 신사숙고해야 한다. 77년생 불만족스런 하루지만 혼자서 자위하라. 행운의 숫자 : 15, 41
42년생 옛 문서를 잘 살펴봐라 괴로움이 발생할라. 54년생 단호한 결단을 내리라 좋은 판단이 따라라. 66년생 남의 말을 듣지 마라 손재가 따른다. 78년생 모든 일이 지연되나 좋은 쪽으로 향한다. 행운의 숫자 : 13, 43
43년생 대우으로 향하니 그릇을 키워라. 55년생 새로운 일은 활발한 일터가 되니 재물이 생길 수다. 67년생 친인척의 조언으로 도움을 받게 되니 들어 보는 것도 좋으리라. 79년생 천천히 신중하게 결정하면 재물이 생길 수다. 행운의 숫자 : 23, 39
44년생 잘못된 문서로 눈물이 나니 자세하게 살펴봐라. 56년생 열등하게 큰일을 벌이면 먹을 밥도 못 찾는다. 68년생 호사다마 잘나가야는 일도 다시 한번 살펴봐라. 80년생 손실은 투자가 되리니 너무 걱정을 하지마라. 행운의 숫자 : 20, 27
45년생 잘 될 때를 조심하라 예기치 않은 복병이 나타난다. 57년생 부인의 주변에 좋은 일이 생긴다. 69년생 뜻대로 진행되나 이득은 미치지마라. 81년생 밀린연 결조자가 도움은 주지만 기약은 없을 수니 큰 기대는 하지마라. 행운의 숫자 : 24, 32
46년생 불려가자 갑자기 나타나니 행동에 신중해야 하라. 58년생 배우자의 불려가 예상되니 잘 보살펴야 하라. 70년생 오늘은 가정에서 인내하면 좋은 일이 생길 수다. 82년생 모든 일이 편안하니 마음 놓고 지내라. 행운의 숫자 : 18, 30
47년생 가정에 대고 예상되니 하루 종일 살펴봐라. 59년생 가까운 사람들의 다짐이 생길 수니 신뢰를 쌓아 가면 大難은 無難이다. 71년생 생 대화가 많으면 오해는 없으리라. 83년생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실속이 있다. 행운의 숫자 : 12, 25

상처를 딱지없이 깨끗하게!!
더마플라스트
제품문의: (주)로한약품 062-384-6883

굿모닝 잉글리쉬 <824>
What's wrong?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A: We have got to cut back on some of the kids' activities.
B: Why? What's wrong?
A: It's to the point where all I do is drive kids around after school.
B: Well, let's talk to them. And see what we can figure out.
A: 우리는 아이들의 활동을 좀 줄여야 해요.
B: 왜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A: 방과 후에는 저는 아이들 주위를 차로 맴돌아야 합니다.
B: 그래요, 그러면 그들과 상의를 해보죠. 그런 다음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한번 봅시다.
cut back : (생산 경비 따위를) 줄이다(reduce), 중지하다.
figure out : (문제 따위를) 풀다, 이해하다, (해답 따위를) 생각해 내다.
응용표현
- Let's see what I can do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한번 봅시다
오하이오 니혼고 <824>
いつまでつづくんでしょうね
언제까지 계속 될까요
A: この不景氣(ふけいき)は、いつまでつづくんでしょうね。
B: 株(かぶ)の取引(とりひき)も低迷(ていめい)していますし、先行(さきゆき)が不安(ふあん)ですね。
A: ええ、テロ事件(じけん)以後(いご)ももっと不安になりましたからね。
B: 不安(ふあん)材料(ざいりょう)が多(おほ)すぎて豫想(よそう)がつかませんね。
A: 이 불경기는 언제까지 계속 될까요.
B: 주식 거래도 활발치 않고 장래 시황도 불안합니다.
A: 예에, 테러사건 이후 더욱 불안해졌으니까요.
B: 불안한 재료(요소)가 너무 많아서 예상이 되지 않습니다.
不景氣(ふけいき) : 불경기
株(かぶ) : 주식
低迷(ていめい) : (시세) 좋지 않다
先行(さきゆき) : 장래 앞시세
豫想(よそう) : (미래) 할 수 없다
니하오 쑹구위 <15>
附近有没有银行?
근처에 은행있나요?
A: 附近(附近)有没有银行?
B: 附近(附近)没有银行。
A: 附近(附近)没有银行。
B: 附近(附近)没有银行。
A: 附近(附近)没有银行。
B: 附近(附近)没有银行。
한자 이야기 <442>
光風霽月 (광풍제월)
빛 광, 바람 풍, 갯 제, 달 월
광풍제월(光風霽月)은 맑은 날의 바람과 비건 날의 달이라는 의미이다. 사람의 인품이 깨끗하여 가슴 속이 맑고 고결함을 비유한다.
소사(蘇軾)와 함께 북송(北宋) 시대의 한시를 대표하는 황정견(黃庭堅·1045~1105)이 주자학(朱子學)의 개조(開祖)로 불리는 주돈이(周敦頤·1017~1073)를 존경하여 '주돈이전편(周敦頤傳)'이라는 글을 남겼다. 그 가운데에 "그의 인품이 심히 고명하며 마음결이 시원하고 깨끗하여 마치 맑은 날의 바람과 비건 날의 달과 같다."라는 표현을 남겼다. 여기서 유래하여 '광풍제월'이라는 말은 훌륭한 인품을 나타낼 때 쓰이고, 또는 세상이 잘 다스려진 상태를 말하기도 한다.
담양벌에서 무등산이 보이는 곳에 양산보(梁山浦·1503~1557)가 '시원하고 깨끗한 정원'이라는 소쇄원(瀟灑園)을 지었다. 소쇄원의 가장 뒤편 언덕위에 독서하며 학문에 전념하던 사적 공간인 제월당(霽月堂)이 자리하고, 중심 부분에 손님을 맞이하는 일종의 사랑방과 같은 광풍각(光風閣)이 있다. 이 광풍의 '광풍'·'제월'에는 세상을 '시원하고 깨끗하게' 만들고자 하였던 양산보의 소망이 담겨있다고 하겠다.